

# 외국 가족농원의 비교 분석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

- 일본, 독일, 러시아 사례를 중심으로 -

박덕병 · 이상덕\* · 이해현 · 이민수 · 장면주\*\*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개발연구소 · \*농촌진흥청 국제협력과 · \*\*일본 구마모토대학 지역연계정책과

## Exploring the Allotment Gardens and Its Implication

- Case Study on Kleingarten in German, Dacha in Russia and Civic Garden in Japan -

Park, Duk-Byeong · Lee, Sang-Duk\* · Lee, Hye-Hyun · Lee, Minsoo · Jang, Myun-Ju\*\*

Rural Resource Development Institute, RDA · \*International Cooperation Affair, RDA

\*\*Dept. of Regional Relation Policy, Kumamoto University, Japan

**ABSTRACT** : The study aims to explore the situation of allotment garden and its implication from case study on the Kleingarten in German, the Dacha in Russia and the Civic Garden in Japan. It has shown that the allotment gardens have gradually been an important for urban people to have recreation and health from agricultural activities. The results suggest that whereas most of kind of allotment gardens in three countries was perspectively enhanced according to their historic and social contexts, the basic rationales initiated were to provide recreation areas for supporting people health and preserving green areas in urban areas. To expand these kind of allotment gardens, we conclude that the establishment and amendment of the related law are needed to activate and enhance the allotment garden in Korea.

**Key words** : Allotment garden, Civic garden, Dacha, Kleingarten

### I. 서론

도시민의 농촌생활을 위한 농촌복합생활공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되고 있다. 독일,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의 국가들은 일찍부터 소규모 농업 생산 공간을 조성하여 도시민들이 도시근교 또는 농촌지역에서 일상생활 속의 농업·농촌을 가까이 하는 생활을 중시하여 왔다. 이를 바탕으로 이들은 심신 건강뿐만 아니라, 휴식공간 제공, 아동교육 장의 기능을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공간의 명칭도 각 나라의 역사와 문화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호칭되고 있다. 영국은 'Allotment garden'이라 하여 '구획이 나누어져 있는 정원'이란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독일은 'Kleingarten'이라 하여 '작은 정원'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다. 러시아는 'Dacha'라 하여 '나누어준다'

라는 의미로 제정 러시아 시대부터 토지를 하사한 것에 유래되었다. 일본은 독일의 클라인가르텐의 개념을 받아들여 '시민농원'이라 칭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은 시민농원 정비촉진법을 통하여 시민농원 개념 정의를 명확히 하고 있으며, 국민정서함양과 건강유지, 농지보존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확대 보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도시외곽에 '주말농원'이나 '주말농장'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이들 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형태와 비교하면 시작단계에 불과하다. 그동안 외국의 이러한 형태의 시설을 '국민농원', '주말농장', '여가농원', '취미농원' 등으로 칭하기도 하였으나, 주말농장보다는 포괄적인 의미로 '가족농원'이라는 용어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사용하였다(박덕병 등, 2005). 이 연구는 외국 시민농원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우리나라에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주말농원을 발전시키기 위한 시사점과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Corresponding author : Park, Duk-Byeong  
Tel : 031-299-0543  
E-mail : parkdb@rda.go.kr

### II. 선행연구 고찰

표 1. 주말농장 이용현황

구분	합계	주말농장	주말과수원	주말목장
농장수(개소)	563	422	136	5
참여자수(명)	72,141	40,458	28,033	3,650

자료: 농림부('04. 9월 현재)

도시민들이 도시근교의 농촌에 일정한 면적의 농장이나 과일나무를 빌려서 직접 농사를 체험해 보는 주말농원 이용이 증가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족농원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본의 시민농원과 유사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은 주말농장, 주말과수원, 주말목장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이러한 형태의 주말농장 이용현황은 표 1과 같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가족농원에 관한 연구는 주로 '주말농원'에 관한 것 위주로 이루어졌으며, 최근에 가족농원 조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됨에 따라 체재형 주말농원(농협중앙회, 2006), 펜션형 주말농원(농협중앙회, 2006), 농업체험형 가족농원(농촌진흥청, 2006) 등 다양한 형태가 등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가족농원에 대한 연구는 크게 가족농원에서 '텃밭 가꾸기'란 형태 작물재배기술에 관한 것(서울특별시 농업기술센터, 1999, 2000, 2003, 2005a, 2005b), 주말농장의 현황에 대한 기초조사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권기춘, 1995, 농협중앙회, 2006a, 농협중앙회, 2006b), 도시가족들이 주말농장에서 영농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그 효과를 분석한 연구(한국 4H 본부)가 있다. 그리고 최근 도시주변에서 소규모로 있는 주말농장보다는 통나무집이 있는 체재형 가족농원의 조성 필요에 대한 정책자료(농림부, 2005, 농촌자원개발연구소, 2005) 등이 있다.

그 외에도 독일(Kleingarten), 영국(Allotment Garden), 미국(Gardening Plot), 러시아(Dacha), 일본(시민농원) 등의 국가들은 우리나라의 주말농장 형태에서부터 별장형 농장까지 여러 가지 유형의 가족농원이 그 나라의 사회적, 역사적 특수성에 따라 발달하여 왔다. 각국의 가족농원의 사례를 간단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크라인가르텐(Kleingarten)은 독일어로 작은 정원이라는 뜻으로 일반적으로 도시 구역 안에 집단적으로 조성되어 있는 정원을 의미한다. 주로 주택 안에 정원을 가지고 있지 않은 도시민들이 집에서 도보로 10-30분 정도 떨어져 있는 사유지를 임대해서 채소 등을 심고 가꾸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독일에서 도심지 유휴지에 크라인가르텐 수는 400만개소로 9.5가구당 1개소에 해당하며, 인구 20명당 1개소가 있을 정도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19세기 중반 이후 독일은 산업화에 따라 도시 인구가 늘어나면서 햇볕도 들지 않는 좁고 열악한 주거환경이 사

람을 병들게 하는 주원인으로 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의사인 슈레버 박사가 주창하여 시작되었다. 당초에는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해 채소묘상을 만들어 씨 뿌리고 가꾸고 수확까지 체험할 수 있는 어린이 놀이공간으로 시작하였으나 현재 도시 관내에 집단적으로 산재되어 있어 도시민들의 건강과 휴식의 공간이며 도시 내의 녹색공간을 제공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다차(Dacha)는 러시아어로 별장이란 뜻으로 텃밭이 딸린 도시근교의 오두막집을 의미한다. 19세기에는 부차 또는 귀족들만의 별장으로 여름이면 이곳에서 살며 호화스러운 파티를 즐겼으며, 1917년 혁명 이후 사람들에게 개인재산으로 인정하기 시작하여 1958년 흐루시초프가 모든 사람들에게 주말별장(토지 150평, 주택 9평)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으로 발전하여 오늘날 러시아 연방정부에 등록된 다차수는 약 3천 2백만개소로 인구 3.7명당 1개소로 발전하였다.

다차는 통나무로 지은 집과 텃밭이 딸린 주말농장으로 난방이 되지 않으므로 기후가 따뜻한 기간 동안만 사용할 수 있으며, 제 2의 집으로 가족들간의 애정이 싹트는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러시아에서 다차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으며 도시 집단주거 형태에서 탈출하는 탈출구로 시골에서 사유재산처럼 집과 텃밭을 가꿀 수 있는 가족단위 휴식처를 제공한다. 특히 저소득층에게는 식량 공급원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작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생산되는 농산물은 친환경 농산물로 러시아 경제의 10%를 차지하고 있다. 규모와 질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다차가 있는데 GDP(Garden Plot Dacha)이 시설수준이 낮으며, DPD(Dacha Plot Dacha)는 중간수준이고, CHD(Country House Dacha)는 가장 시설규모를 잘 갖춘 다차이다.

최근 일본에서 도시 주민과 농촌 주민 간 교류와 이를 통한 레크리에이션 등의 여가 활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리하여 농작물의 재배, 농사일을 통한 교육, 장애자·고령자 대책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도시와 농촌의 교류를 증진시키는 시민농원과 같은 사업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일본의 시민농원은 우리나라와 같이 주말농원형태로 이루어지던 것을 정비하여 오늘날과 같이 발전하였다. 시민농원의 형태로는 도시 주민들이 자택에서 오가며 이용할 수 있는 당일치기형(日歸り型) 시민농원과 농촌에 머무르면서 농원을 이용하는 체재형 시민농원(크라인가르텐)이 있다. 그 외에도 최근에는 농업·농사일의 교육적인 기능이나 의료상의 효과가 인정되면서 학교 법인, 복지 법인 등에서 스스로 농지를 보유하여 농업 체험이나 원예 요법을 목적으로 한 학동 농원, 복지 농원도 증가하고 있다. 2004년 4월에는 '구조개혁 특별 구역법'이 시행되어 농지의 유휴화가 심각한 문제인

표 2. 외국 가족농원 비교 분석들

국가	가족농원 형태	비교 분석들	
일본	시민농원	1. 현황	단지수, 구획수, 회원수, 운영주체, 시설, 정부지원, 위치
독일	클라인가르텐	2. 시설	단지규모, 구획크기, 로그하우스 크기
러시아	다차	3. 운영	이용규칙, 이용시기, 이용시간, 이용제한, 임대료, 임대기간

지역에 지방공공단체 및 농업협동조합 등 다양한 사람들이 시민 농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 농지 대부법의 특례 조치를 강구해 시민농원의 개설을 촉진해 나가고 있다.

### III.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현지 방문조사와 수집한 문헌자료를 토대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독일의 자료는 2004년 6월 연구자가 독일 칼스루에 지역을 방문하여 조사한 자료를 활용하였고, 일본의 자료는 연구자가 2005년 10월에 구마모토 농정국의 담당자들과의 인터뷰와 북 큐슈지역의 현지 방문, 그리고 효고현의 체제형 시민농원을 방문하여 조사한 자료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러시아의 자료는 연구자가 그동안 러시아를 방문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본 연구는 일본, 독일, 러시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족농원의 특징을 가족농원 유형, 운영주체, 구획크기, 통나무집크기, 이용규칙, 시설특성, 정부지원, 임대료, 임대기간, 재산권, 이용시기, 이용시간, 이용제한 요건, 단지규모, 이동거리 등을 비교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비교분석 내용은 다음의 표 2와 같다.

### IV. 결과 및 고찰

#### 1. 일본의 시민농원

최근 일본에서는 도시·농촌 주민 간의 교류와 이를 통한 레크리에이션 등의 여가 활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농작물의 재배, 농사일을 통한 교육, 장애자·고령자 대책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도시와 농촌의 교류를 증진시키는 시민농원과 같은 사업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시민농원은 도시생활자가 레크리에이션이나 자가용(自家用) 야채의 생산 등을 목적으로 좁은 면적으로 구획을 나누는 농지를 빌려 야채나 꽃 등의 재배를 즐기는 농원을 말한다. 일본 시민농원의 현황, 특징,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현황

시민농원에 관한 정의는 1992년에 제정된 ‘시민농원정비촉진법’에 잘 나타나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시민농원이란 ‘『특정농지대부에 관한 농지법 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특정농지대부의 이용에 제공되는 농지’이다. 단, 지방공공단체 및 농업협동조합 이외의 사람이 해당 법률의 방식에 의해 시민농원을 개설하는 경우는 다음의 요건을 의무화하고 있다. 첫째, 적절한 농지이용을 확보하는 방법 등을 정하는 대부협정을 시정촌과 체결해야 한다.(둘째에 의해 농지를 빌려서 특정농지대부를 실시하는 경우는 시정촌과 해당 농지의 대부를 한 지방공공단체 또는 농지보유합리화법인과의 제 3자간에 체결). 둘째, 농지를 소유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는 지방공공단체 또는 농지보유합리화법인으로부터 농지사용 임차권을 받아서 특정농지대부를 실시한다.<sup>1)</sup> 그 외에 상당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전형적인 조건으로 레크리에이션 등에서 영리 이외의 목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농작업의 이용에 제공되는 농지(도시주민 등에 대한 권리설정이 없음)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시민농원시설(농지에 속해 있는 농기구 수납시설, 휴게시설, 그 외의 해당 농지의 보전 및 이용상 필요한 시설)도 포함하고 있다.

시민농원의 조건으로는 여러 명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고 정해진 형식대로 운영될 것<sup>2)</sup>, 레크리에이션 등 비영리적인 재배를 목적으로 할 것<sup>3)</sup>, 농작업이 계속(해마다 2회 이상) 시행될 것, 주로 도시 주민이 이용할 것 등이 있다. 이러한 것들은 법률(시민농원정비촉진법)에도 명확히 제시되어 있다. 시민농원의 개설은 지방공공단체(시정촌), 농협, 농업종사자, 구조개혁특구에서 할 수 있다.

표 3. 년도별/개설자별 시민농원 개설 현황

개설자	1994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4)
지방공공단체	807	1,956	2,090	2,166	2,258	77.8
농업협동조합	217	435	457	512	481	16.6
농업 종사자	15	121	129	141	149	6.6
구조개혁특구	-	-	-	-	16	0.7
계	1,039	2,512	2,676	2,819	2,904	100.0
시민농원정비촉진법	76	296	323	347	360	12.4
특정농지대부법	963	2,353	2,353	2,472	2,544	87.6

자료: 農林水産省 地域振興科. 2005a. 市民農園の現状.

- 1) 2005년 9월 1일부터 적용 ‘특정농지대부법의 일부를 개정된 법률’(2005년 법률 제 52호)
- 2) 이용기간, 이용요금 등이 정해져 있어 계획적으로 운영됨.
- 3) 레크리에이션, 아동의 교육, 고령자 복지, 자가소비용 야채·화초의 재배 등을 목적으로 함.

표 4. 지역별 시민농원 개수/구획수/면적

지역	농원수	%	구획수	%	면적 (ha)	%
전국	2,904	100.0	152,481	100.0	959	100.0
도시지역	2,129	73.3	117,571	77.1	536	55.9
평지농업지역	235	8.1	12,382	8.1	118	12.3
중간농업지역	377	13.0	15,200	10.0	191	19.9
산간농업지역	163	5.6	7,328	4.8	114	11.9

자료: 農林水産省 地域振興科. 2005b. 特定農地貸付法の一部改正する法律の施行に伴う参考資料集.

지역별로는 도시 지역의 농원수가 2,129개로 전체의 73.3%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간농업지역은 농원수 377개로 13.0%이며, 평지농업지역은 농원수가 235개로 8.1%를 차지하고 있다. 특징적인 현상은 도시지역이 농원수나 면적에 비하여 구획수가 많은 것이 특징이고, 산간농업지역은 농원수나 구획수에 비하여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큰 것이 특징이다. 이것은 산간지역일수록 휴유농지가 많고, 체재형 시민농원과 같은 시설이 설치되어 한 구획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크기 때문이기도 하다.

나. 특징

일본 시민농원은 레크레이션 여가 활동에 대한 관심 증대, 농작물의 재배, 농사일에 대한 교육, 장애인·고령자 대책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도농교류 증진이 주목적이었다. 이에 따라 시민농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특정농지대부법(1989)’과 ‘시민농원정비촉진법(1990)’을 제정하여 시민농원의 법적 기반을 정비하였다(參議院農林水産委員會調査室, 2005).

시민농원이란 ‘특정농지대부법’ 규정에 의거하여 시민농원시설(농지에 속해 있는 농기구 수납시설, 휴게시설, 그 외의 농지의 보전 및 이용상의 필요한 시설)을 포함하여 정의하고 있다. 시민농원은 그 유형에 (도시근교형, 도시형, 농촌형 시민농원)에 따라 매우 다른 특징을 보인다.

- 도시형: 도심속에 소규모 구획 조성, 우리나라 주말농장과 비슷
- 도시근교형: 교류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주로 관광농원형태
- 농촌형: 체재 가능한 소규모 집을 개별 농장구획마다 갖추고 있음

시민농원이 가진 다양한 기능은 아래 표 5와 같다.

다. 사례

1) 사례 1: 프로이덴 야치요 시민농원

프로이덴 야치요 시민농원은 체재형으로 1993년에 조

표 5. 일본의 시민농원 기능

개설자측	토지보전기능	휴유농지활용에 의한 적절한 농지의 유지·관리
	고용기능	농원관리자, 재배지도자의 고용
	교류기능	이용자와의 교류
이용자측	보건휴양기능	심신의 재충전, 건강증진
	생산기능	신선하고 안전한 작물 수확
	교육기능	농업에 대한 이해, 아이들의 정서교육
지역	교류기능	이용자들 간의 교류, 개설자·지역주민과의 교류
	공지[空地]기능	일조, 통풍확보, 화재방지, 재해시 피난장소
	풍치[風致]기능	넓은 녹지 형성

자료: 千葉縣市民農園協會. 2004. 市民農園のすすめ. 株式会社 創森社



그림 1. 프로이덴 야치요 전경.

성되었다. 단지면적은 3.1ha, 구획수는 60동, 한 구획면적은 310m<sup>2</sup>로 이루어져 있다. 부대시설로는 교류센터, 꽃밭, 과수원, 잔디광장, 주차장 등이 있다. 연간 임대료는 2백 7십여만 원(276천 엔)이다(八千代町, 2004, 多可郡多可町八千代區, 2005). <그림 1>

2) 사례 2: 프라이변 오오야 시민농원

프라이변 오오야 시민농원은 체재형으로 2002년에 조성되었다. 프라이변 오오야 시민농원은 다락논을 활용하였으며, 구성에 소요된 예산은 25억원이다. 시민농원의 규



그림 2. 프라이변 오오야 체재형 시민농원 전경.

모를 살펴보면, 단지면적은 0.7ha, 구획 수는 20동, 한 구획 당 면적은 190m<sup>2</sup>이다. 부대시설로는 교류센터, 꽃밭, 과수원, 잔디광장, 주차장 등이 있다. 연간 임대료 3백여만원(304천 엔)이다(八千代町, 2004, 多可郡多可町八千代區, 2005). <그림 2>

3) 사례 3: 브루멘 야마토 시민농원

브루멘 야마토 시민농원은 체재형으로 2004년에 조성되었다. 시민농원의 규모를 살펴보면, 단지면적은 1.6ha, 구획수는 30동, 한 구획당 면적은 350m<sup>2</sup>이다. 시민농원 조성에 소요된 예산은 약 40억원이며, 부대시설로는 교류센터, 꽃밭, 과수원, 잔디광장, 주차장 등이 있다. 연간 임대료는 4백여만원(396천엔)이다(八千代町, 2004, 多可郡多可町八千代區, 2005).

라. 시사점

일본에서 시민농원은 크게 도시형, 도시근교형, 체재형 세 가지 형태가 있으며, 그 특징이 매우 다르다. 따라서 이를 구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체재형 시민농원은 도심으로부터 벗어난 지역(차량으로 1-2시간 거리)에 개별 이용자마다 로그하우스를 가지고 있는 형태로서 현재 일본에서 20여개가 조성되어 있다. 일본의 체재형 시민농원에 있는 로그 하우스는 20년간 농지를 농민에게 임대하

여 조성한 것으로서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시 농지로 환원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어, 기본적으로 농지보전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다(參議院農林水産委員會調査室, 2005).

일본의 체재형 시민농원은 독일의 클라인가르텐을 모방하여 조성하였지만, 클라인가르텐의 사상만 흡수하고 일본식으로 변형하여 이루어진 형태이다. 독일의 클라인가르텐과 달리 체재형 시민농원은 도농교류촉진을 위해 농촌 지역에 조성되어 있어서 농촌관광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일본의 체재형 시민농원은 농촌마을에 살기를 원하는 도시민이 쉽게 적용하지 못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다. 특히 도시에서 농촌지역에 이주하는 사람들이 마을에서 적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적극적으로 도입해 볼 만한 사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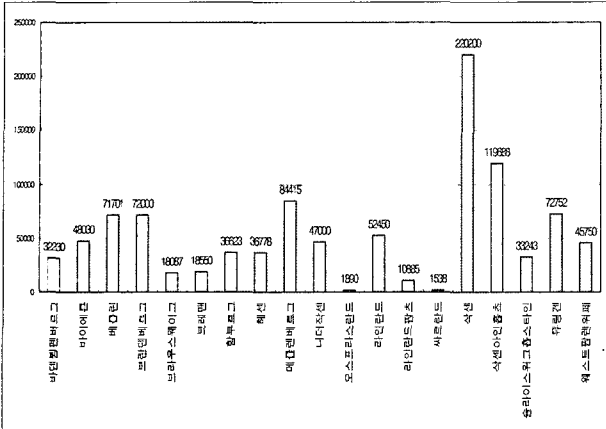
현재 일본의 체재형 시민농원은 도시민의 사회복지, 농촌지역 활성화 추구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한다. 체재형 시민농원 이용자도 중간계층 또는 중간계층이하의 사람들로 구성된 점과 연간임대료도 400만원 정도로 독일에 비하여 비싸게 책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체재형 시민농원 운영을 통해 농촌지역 활성화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민농원조성에 소요되는 건축비가 전액 정부(중앙정부, 지방정부)의 지원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은 시설조성비에 따른 수익성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독일과 같이 해당 도심 내에 사회복지시설 공간으로 고려되지 않고, 농촌지역 지자체에서 도시민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조성된 사업이기 때문에 사회복지 개념으로 정착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용자 대기자가 항상 있을 정도로 인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재형 시민농원 조성을 위한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직 일본에서도 전국에 20여 곳 밖에 조성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체재형 시민농원을 조성할 경우 관련법에 대한 정비와 더불어 과도한 시설조성비를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직면할 것이다.

2. 독일의 클라인가르텐

가. 현황

클라인가르텐(Kleingarten)은 독일어로 ‘작은 정원’이란 뜻으로 30분 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심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여러 개의 작은 정원이 모여 단지를 이루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BDG(독일연방 클라인가르텐 연합회)는 독일 연방 내 19개 주에 지역단위에서 15,200개의 지역연합회와 120만 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것의 총 면적은 52,000ha에 달하고 있다<그림 3>.



자료: BDG, 2005b. Landesverband bayerischer Kleingärtner e.V.

그림 3. 주별 클라인가르텐 가입 회원수.

**나. 특징**

클라인가르텐은 휴식공간, 여가공간, 공공녹지조성, 교통문제 해결 등의 기능을 하고 있다. 연방 건축법 5조는 클라인가르텐의 평균 단지 면적은 3.3ha, 한 구획의 면적은 250-300m<sup>2</sup> 정도로 정하였다. 지방자치단체는 도시 가구 수 8가구당 1구획의 클라인가르텐 조성을 의무화하였다(BDG, 2005a).

클라인가르텐 1구획이 병원의 침상 1개를 줄일 수 있다는 인식을 할 정도로 클라인가르텐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연방 클라인가르텐법(1983년)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Bezirksverband der gartenfreunde Karlsruhe e.V., 2005).

- 로그하우스(라우베) 정자의 크기와 짓는 형태 (최대 허용되는 기본면적, 지붕의 용마루 높이, 처마의 높이, 지붕모양, 재료, 통나무집의 색깔 칠하기와 건설)
- 통나무집의 이용, 협회건물의 건축형식과 건설방법
- 녹지조성, 식수 조성, 전체부지 울타리치기
- 그 밖의 공동 시설물들의 종류와 규모

**다. 사례**

1) 사례 1: Hagsfelder Albe(합스팔데 알베) 클라인가르텐  
Hagsfelder Albe(합스팔데 알베) 클라인가르텐은 1921년부터 시작되어 현재 400여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프랑스, 크로아티아 등의 국가에서 온 사람들도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 칼스루에 지역에서 가장 잘 운영되고 있는 소정원이다. 클라인가르텐 연간 이용 비용은 350유로이다(토지임대료 45유로, 회비 60유로, 전기료 50유로, 물사용료 120유로, 보험료 75유로). <그림 4>



그림 4. 칼스루에 합스팔데 알베 클라인가르텐 전경.

2) 사례 2: Steinacher(스타인나체러) 클라인가르텐

Steinacher(스타인나체러) 클라인가르텐은 2001년에 조성되었으며, 칼스루에 지역의 클라인가르텐 협회 본부가 있다. 칼스루에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인 시청에서 3년 전에 새로이 농장을 만들기 시작하여 현재 확장 조성되고 있다(Bezirksverband der Gartenfreunde Karlsruhe e.V., 1997). 현재 140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으며, 어린이 생태학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그림 5>

**라. 시사점**

독일의 클라인가르텐은 일본의 체재형 시민농원이나 러시아의 다차와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첫째, 휴식공간이나 레크레이션 공간 제공의 측면에서는 공통점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도시에 위치하고 있어서 도시민들이 공원을 이용하듯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되어 있는 특징이 있다. 둘째, 도보로 10-30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주말에 방문하는 곳이 아니라 매일 일과 후 방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독일 클라인가르텐은 농업적인 영역을 도시지역으로 끌어어들여서 도시민에게 농업 생산 활동을 통한 심신의 건강과 휴식기능을 제공하고, 도시미관이나 공원뿐만 아니라 도시지역의 비오톱을 유지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클라인



그림 5. 독일 칼스루에 스타이나체르 클라인가르텐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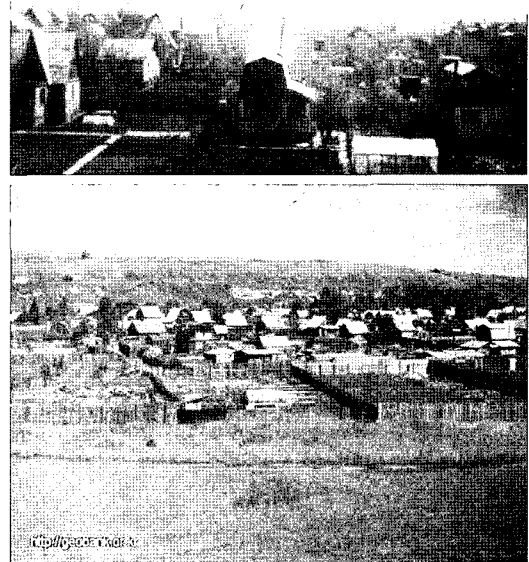


그림 6. 다차마을의 전경.

가르텐이 제공하는 기능은 다양하지만,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게 해주는 기능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다.

클라인가르텐은 농업 생산 활동을 통한 농업·농촌지역과 연계보다는 기본적으로 도시지역의 사회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어 집에 정원이 없는 저소득층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 특히 클라인가르텐 1단지 조성에 80억 정도가 소요되는 점과 연간이용료가 50만원으로 매우 저렴한 점은 클라인가르텐이 수익사업이라기 보다는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한 복지정책으로서의 특징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클라인가르텐은 도심 근린공원을 효과적으로 조성하는 사업의 일환으로도 간주되고 있다. 그 이유는 클라인가르텐 1단지 조성에 80억 정도가 소요되지만, 도심 근린공원 조성에 사용되는 공공비용으로 간주되어 매우 가치있는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아이가 있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클라인가르텐을 이용하게 함으로서 자라나는 세대에게 농업 생산 활동의 중요성과 건강 및 교육적인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 3. 러시아의 다차

#### 가. 현황

다차는 러시아의 도시 외곽에 위치한 주말농장 형태의 작은 통나무집으로 ‘텃밭이 딸린 도시근교의 조그만 목

조가옥’을 말한다. 1720년부터 황제가 귀족들에게 농노가 딸린 영지를 하사하면서부터 ‘나누어주다’라는 의미를 갖는 다차가 도입되기 시작되었다(Lovell, 2003). 2004년 러시아 연방정부에 등록된 다차는 약 3,200만개로, 도시민의 70%가 다차를 소유하고 있으며, 인구 4.5명당 1개의 다차를 소유하고 있다(ВИАПИ, 1998). <그림 6>

러시아에서는 약 40-50%의 농산물이 다차에서 생산하고 있으며, 감자의 경우 90% 이상을 다차에서 생산한다. 하지만 러시아에서는 현재 다차에서 생산되는 실제 농산물의 생산량이 얼마인지는 정확한 통계가 없는 실정이다.

#### 나. 특징

구소련 시절의 다차는 특권층만이 누릴 수 있는 별장형태였으나, 페레스트로이카 이후 토지소유권이 인정되면서, 도시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차를 가지게 되었고 이후 경제적 위기와 식료위기를 극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A.В.Петриков, 1995, Н.Я.Коваленко, 1998).

식료공급과 휴식공간을 위한 장소로서의 기능을 하였던 과거 페레스트로이카 초기의 다차와 달리 오늘날의 다차는 매우 호화로운 휴식공간의 역할만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П.А. Андреев, 1996). 그림 7은 모스크바 인근의 경치와 전망이 좋은 다차의 모습이고, 그림 8은 다차에서 일하고 있는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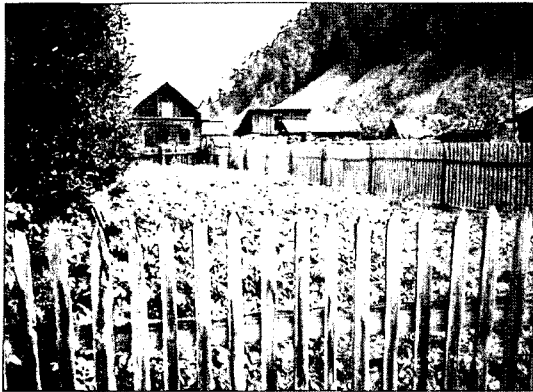


그림 7. 다차와 감자밭.



그림 8. 다차에서 일하는 모습.

#### 다. 시사점

러시아의 다차는 1720년 시작되어 매우 오래 지속되어 왔으며, 각 시기마다 그 성격이 변화되어, 아주 초라한 농막형태부터 호화로운 별장까지 그 특징이 매우 다양하다. 다차는 ‘별장’, ‘주말농장’, ‘텃밭’ 등의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 러시아에서 매우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어 있다.

최근 러시아에서 다차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은 러시아의 정치 경제적인 상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국민의 70%가 도시로 이주되면서 주택난이 심각해지고 있으며, 도시에 주택을 소유할 필요가 없는 은퇴자들에게 다차는 유용한 생활공간이 되고 있다. 도시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주택이 매우 좁기 때문에 주말에는 넓은 공간에서 생활하여 대리만족을 느낄 수 있어 다차가 널리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도시의 주택난으로 가족, 친지들이 모일 수 없지만, 다차는 가족, 친지들이 모일 수 있고, 세대간 활동을 가능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주 5일제 근무실시로 휴식시간이 증가되어 이러한 가족 모임이나 세대간 접촉의 공간적 기능의 의미가 더욱 확산되고 있다.

러시아의 다차가 농촌주민들과 공동활동에 대한 고려가 없이 단순히 도시민의 휴식공간이나 식료 공급원의 기능이 주로 이루어지면서 전통적으로 사회 특권층이 소유하는 향유물이라는 의식과 함께 농촌주민들에게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러시아의 다차는 독일과 같이 도심에 위치한 것이 아니고, 일본과 같이 농촌에 위치해 있지만, 일본과 같이 소규모의 로그 하우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택과 같이 큰 규모로 조성되어 있어, 러시아의 다차를 우리나라에 도입하려면 농가주택을 증·개축하여 이용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 4. 종합적인 비교

이상에서 논의된 일본, 독일, 러시아의 가족농원을 특성을 비교하면 다음의 표 6과 같다. 비교하는 항목은 현황, 운영주체, 구획크기, 이용규칙, 유형, 시설, 재산권, 이용시기, 이용제한 등이다.

독일이나 러시아는 200여년 전에 이미 시작하였으며, 독일은 클라인가르텐이란 형태로 현재까지 발전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러시아의 사회경제적 특징에 따라 그 성격이 많이 변화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일본은 100여년 전에 시작하였지만, 최근 독일의 클라인가르텐을 일본식으로 받아들여 시민농원이란 형태로 발전해 가고 있다. 특히 농촌에 있는 체재형 시민농원은 독일의 클라인가르텐을 일본식으로 변형시켜 발전시킨 전형적인 모형이다.

독일과 일본은 구획크기가 비슷하고 통나무집도 비슷한 형태이지만, 러시아는 독일이나 일본에 비하여 규모가 2-3배로 큰 것이 특징이다. 독일과 일본은 통나무집이 비슷하지만 일본이 독일에 비하여 통나무집이 조금 큰 것이 특징이다. 특히 최근 일본의 체재형 시민농원은 통나무집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

단지조성에 있어서 일본과 독일은 1개 단지 조성에 약 80억원 정도의 정부지원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 특징이며, 재배하는 나무 높이나 채마밭의 크기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는 1구획이 600m<sup>2</sup> 이상으로 비교적 넓기 때문에 이용규정이 없거나 비교적 느슨한 것이 특징이다. 연간 임대료를 살펴보면, 일본은 연간 300-500만원 정도로 매우 높은 실정이지만, 독일은 45-60만원 정도로 정원이 없는 저소득 계층자를 위한 사회복지 차원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재산권 행사 실정을 살펴보면, 일본은 1년마다 임대료를 지불하여 임대하는 형태이고, 독일은 소유할 수 없으면 평생 동안 이용권만 가질 수 있다. 특히 독일에서는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이용권을 매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표 6. 각국의 시민농원 비교 및 우리나라에 적용가능한 가족농원

구분	일본	독일	러시아	우리나라에 바람직하게 적용 가능한 체재형 가족농원 형태
명칭	시민농원	클라인가르텐	다차	가족농원 혹은 가족여가농원
유형	도시형, 도시근교, 체재형	도시형	도시근교, 체재형	도시근교, 농촌체재형
시작	1920년 최근 활성화되고 있음	1864년 시작하여 1921 기구 조직	1720년 시작되었으나 현대적형태는 1980년 후반이후	2007년 추진 계획중
현황	2904개 단지, 구획수 15, 여가회원수 15만 여명, 체재형 20 여개	15,200개 단지 회원수 120만명	3,200개 연방정부 등록 40-50% 정도 농산물 다차에서 생산	현재 4단지 추진 계획 중
운영주체	지방공공단체, 농업협동조합 개인, 체재형시민농원(시정촌)	시청	개인	지방자치단체, 농협, 농민단체
구획크기	당일형: 10-50m <sup>2</sup> 체재형: 190-300m <sup>2</sup>	250-300m <sup>2</sup>	600m <sup>2</sup> 이상	체재형: 190-300m <sup>2</sup>
로그하우스 크기	로그하우스 27.8-39.7m <sup>2</sup>	24m <sup>2</sup> 이하	제한 없음	로그하우스 27.8-39.7m <sup>2</sup>
이용규칙	나무높이, 발넓이(60m <sup>2</sup> 이하)를 넘히지 못하도록 엄격히 제한	나무높이, 발넓이를 어느 정도 유지하도록 엄격히 제한	제한 없음	나무높이, 발넓이(60m <sup>2</sup> 이하)를 넘히지 못하도록 엄격히 제한
시설	도시형은 로그 하우스 없음. 도시근교형은 단체 숙박시설이나 중심부에 판매장이나 레스토랑을 겸비한 회관이 있음. 체재형은 개인별 로그 하우스 있음	로그하우스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음 관리사무소가 있으며 레스토랑을 겸비한 곳도 있음	대부분 로그하우스 있음	가구당 체재형 로드하우스, 농기구창고, 상하수도시설, 방문자센터
정부지원	정부지원 단지1개 조성 80억	정부지원 단지 2개 조성 80억	개인	정부지원 요망
임대료	연간 300-500만원 (각종 이용료 별도)	45-50만원(각종 사용료 포함) 임대료는 7만원	-	연간 100-200만원
임대기간	최대 5년	평생	개인소유	1년 단위로 갱신 계약
재산권	최초 분양시 입회금 350-770만원 재산권은 없음	이용권만 가짐 로그하우스 판매 가능 (최대 4천유로 초과불가)	개인소유	재산권없이 임대권만 가짐
이용시기	본인의 희망에 따라	3월 1일-10월 30일	본인의 희망에 따라	본인의 희망에 따라
이용시간	24시	오전 10시-어두워질까지	24시	24시
이용제한	숙박 가능 주소지 이전안됨	숙박 불가 주소지 이전안됨	-	숙박 및 주소지 이전 가능
로그 하우스	온풍기를 이용한 난방	굴뚝이나 화덕 허용 안됨	-	온풍기를 이용한 난방
단지규모	0.7-3ha	1-3ha	매우 다양함	0.7-3ha
이동거리	차량 2시간 이내	도보 10-30분	차량 1-2 시간	차량 2시간 이내

이용시기를 살펴보면, 일본은 본인이 희망하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지만, 대개 작물이 재배되는 시기만 이용하고 있으며, 독일은 오전 10시부터 어두워질 때까지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독일에서는 통나무집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숙박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특히 간단한 취사는 가능하지만, 굴뚝이나 화덕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에서 도시형 가족농원과 체재형 가족농원의 육성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도시형 가족농원의 육성을 위해서는 현재 대도시 주변에 형성되고

있는 주말농장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주말농장은 개별 농가단위 수준에서 개별농가가 이윤추구를 위하여 개설하여 운영되고 있어, 주말농장이 갖고 있는 공공적 특징이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주말농장이 대도시 인근의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하고 있어 정부에서 이를 양성화하여 육성하기에는 기존의 관련법(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농지법,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의 정비가 요망된다. 아직 상수도시설 및 휴식공간 시설이 부족한 실정이지만 대도시 인근에서 활성화되고 있

는 주말농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육성하는 것이 우리나라 가족농원을 활성화시키는데 시급적이 될 것이다.

그리고 체재형 가족농원은 아직 우리나라에 도입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체재형 가족농원은 주로 농촌형이지만, 도시근교에도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현재 정부에서 전원마을조성 사업단지 4곳에 체재형 가족농원 개설을 추진하고 있다. 통나무집이 없는 가족농원은 시설비가 많이 소요되지 않고, 현재 주말농장 형태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 시설조성을 위한 비용이 많이 소요되지 않지만, 체재형 가족농원은 가구당 통나무집이 필요하고 단지 기반시설 조성에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부지원 없이는 조성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도농교류 촉진과 농촌인구 유입과, 농촌관광의 외연을 넓히는 정책적인 목표를 가지고 농촌 체재형 가족농원 조성이 시급히 필요하다.

## V. 결 론

일본, 독일, 러시아 세 국가의 가족농원의 특징을 검토하여 우리나라 가족농원 조성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독일의 클라인가르텐은 농업적인 영역을 도시로 끌어들이어서 도시민에게 농업생산 활동을 통한 심신의 건강과 휴식기능을 제공한 형태이며, 러시아의 다차는 도시민이 농촌으로 진출하여 농업생산 활동을 통한 식료공급과 휴식공간을 만든 형태이다. 그리고 일본의 시민농원은 농촌주민이 도시민을 농촌으로 끌어들이어 농촌관광과 연계시켜, 시민농원을 통한 농촌 활성화와 도농교류촉진을 시키기 위한 모델이다.

둘째, 일본의 시민농원은 우리나라 도농교류촉진을 위한 농촌복합생활공간 조성에 중요한 참고모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일본 시민농원의 경우 실시지역이 많지 않고 수혜혜택을 받는 농촌마을이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직접소득효과보다는 농촌관광이나 도농교류의 외연과 기반시설을 확대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셋째, 일본의 체재형 시민농원(관광농원과 차별화됨)은 도시민이나 농촌주민들로부터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나 조성비가 매우 높아(1단지 30~80억) 20여 곳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일본은 시민농원을 더욱 확대시키기 위하여 2005년 특정농지임대법을 개정하여 농지를 소유하지 않는 사람도 시민농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완화시켜 시민농원 조성을 활성화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점을 보아도, 시민농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호응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어떻게 체재형 시민농원 조성비를 마련할 것인가이다.

넷째, 우리나라에서도 가족농원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는 기존의 관련법(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농지법,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의 정비가 요망된다. 그리하여 체재형 가족농원을 개설할 경우, 건축되는 로그 하우스의 법적인 지위를 새롭게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특히 일본의 체재형 시민농원은 농지를 20년간 임대하여 다시 농지로 환원하는 것을 전제로 경작 포기지의 농지보전을 중시하는 제도로써 우리나라의 중산간 지역에 도입해 볼 만한 사업이다. 우리나라에서 이와 같은 가족농원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가족농원조성법(가칭)의 제정이 필요하다.

여섯째, 우리나라 가족농원 조성은 일본의 체재형 시민농원 모델이 적합하며, 이를 위해서는 시·군청, 농협, 농민, 관련 협의체 구성 등이 시민농원의 조성 주체가 되어야 하며, 관리와 운영은 마을 자치 운영위원회가 앞장서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일곱째, 우리나라 가족농원 조성의 사업비 지원은 일본과 같이 중앙정부 50%, 지방정부 50%가 적합하며, 지방정부는 조성사업비 마련을 위하여 농협, 상공회의소 등 지방공공단체와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여덟째, 우리나라에서 체재형 가족농원 조성은 일본이나 러시아의 사례에서와 같이 자주 방문하여 농작물을 돌보아야 하기 때문에 비교적 대도시권에서 접근이 용이한 지역(차량으로 약 2시간 이내의 거리)이어야 한다.

아홉째, 체재형 가족농원은 도농교류 촉진과 농촌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므로 가족농원 이용자와 마을주민과의 원만한 상호작용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사업의 적용이나 구성, 실행, 평가에 지역주민들의 주도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특히 정책 수립에 따른 무리한 사업 추진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열째, 도시형 가족농원 조성에 있어서도 그 조성비가 매우 높지만, 독일의 클라인가르텐과 같이 도시내 근린공원 조성비용으로 간주하여 시범사업으로 조성해 볼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1. 권기춘, 1995, 주말농원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 농림부, 2005, 전원마을조성사업. 사업계획서. pp. 2767-2792. 2005년 농림사업. 과천, 농림부
3. 농촌자원개발연구소, 2005, 가평 주말농원 현지출장 결과 보고자료, 미간행 유인물, 수원 : 농촌자원개발연구소
4. 농촌진흥청, 2006, 농업체험형 가족농원 조성, 미간

- 행 유인물, 수원 : 농촌진흥청
5. 농협중앙회, 2005, 도농교류 촉진을 위한 체재형 주말농원 및 은퇴농장 시범사업 추진계획, 서울, 농협중앙회 : 1-15
  6. 농협중앙회, 2006a, 2006 농협 주말농장 안내, 서울 : 농협중앙회
  7. 농협중앙회, 2006b, 펜션형 주말농장 기초조사, 미발행 보고서, 서울 : 농협중앙회
  8. 박덕병, 강승봉, 이상덕, 이해현, 박윤정, 2005, 외국의 가족농원, 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 농촌자원개발연구소
  9. 서울특별시 농업기술센터, 1999, 텃밭 가꾸기, 서울 : 서울시 농업기술센터
  10. 서울특별시 농업기술센터, 2000, 텃밭, 서울 : 서울시 농업기술센터
  11. 서울특별시 농업기술센터, 2003, 텃밭, 서울 : 서울시 농업기술센터
  12. 서울특별시 농업기술센터, 2005a, 텃밭 작물재배기술, 서울 : 서울시 농업기술센터
  13. 서울특별시 농업기술센터, 2005b, 텃밭 채소가꾸기, 서울 : 서울시 농업기술센터
  14. 한국 4-H 본부, 2005, 도시가족의 영농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분석, 서울 : 한국 4-H 본부
  15. 農林水産省 地域振興科, 2005a, 市民農園の現状, 日本, 東京 : 農林水産省
  16. 農林水産省 地域振興科, 2005b, 特定農地貸付法の一部改正する法律の施行に伴う参考資料集, 日本, 東京 : 農林水産省
  17. 多可郡多可町八千代區, 2005, 多可町八千代區 滞在型市民農園施設, 八千代地域局, 日本, 兵庫県 : 多可郡多可町八千代區
  18. 參議院農林水産委員會調査室, 2005, 特定農地貸付けに關する農地法等の特例に關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閣法第43号): 參考資料, 日本, 東京 : 參議院
  19. 千葉県市民農園協會, 2004, 市民農園のすすめ, 株式會社 創森社, 日本, 千葉県 : 千葉県市民農園協會
  20. 八千代町, 2004, 八千代町交流施設案内
  21. BDG, 2005a, Es gibt uns aus Gutem Grund, Berlin, BDG, Germany, Berlin : BDG
  22. BDG, 2005b, Landesverband bayerischer Kleingärtner e.V. Germany, Berlin: BDG
  23. www.kleingarten-bund.de/landesverbaende/bayern/index.php
  24. Bezirksverband der Gartenfreunde Karlsruhe e.V. 1997, 75 Jahre Bezirksverband der Gartenfreunde Karlsruhe e.V. Karlsruhe, Stadt Karlsruhe, Germany, Karlsruhe: Bezirksverband der Gartenfreunde Karlsruhe e.V.
  25. Bezirksverband der Gartenfreunde Karlsruhe e.V. 2005, Die Gartenordnung, Karlsruhe, Stadt Karlsruhe, Germany, Karlsruhe : Bezirksverband der Gartenfreunde Karlsruhe e.V.
  26. Lovell, S, 2003, Summerfolk, USA, Ithaca : Cornell University Press
  27. Петриков, А.В. 1995, 'Специфика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и современная аграрная реформа в России', Russia, Mosco
  28. ВИАПИ, 1998, 'Реформирование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х предприятий б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ий анализ'. Russia, Mosco.: ВИАПИ
  29. Коваленко, Н.Я. 1998, 'экономика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Russia, Mosco
  30. Андреев, П.А.. 1996, 'Структура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в России', Russia, Mosco